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적정인력 충원! 비정규직 해결! 의료민영화 반대! 보호자 없는 병원! 건강보험 강화!

교섭속보 12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 재 옥

<산별현장교섭 1차 교섭 보고>

신뢰의 교섭, 새 역사를 쓰는 교섭으로 만들자!

왼쪽부터) 노측- 이장구 사무장, 노재옥 지부장, 나순자 위원장, 최희선 본부장 / 사측 – 박종웅 의무기획처장, 이기형 의무부총장, 김호용 사무국장

7월 20일(목) 오후 3시, 2018년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1차 산별현장교섭이 진행됐다. 사측위원으로는 이기형 의무부총장, 박종웅 의무기획처장, 김호용 사무국장 및 노사협력팀, 미래전략팀, 인사팀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노측위원으로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 서울지역본부장, 노재옥 지부장 및 간부들이 자리했다. 1차 산별현장교섭은 교섭 첫 회인만큼 상견례로 진행했으며 원활한 교섭 진행을 위한 교섭원칙을 합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 노사 모두 의료원의 한 가족, 좋은 분위기에서 교섭 하자.

노, 불통과 불신 대신 신뢰와 믿음 주는 교섭을 시작하자. 직원들이 존중받는 병원을 만드는 교섭하자.

노사 대표위원 인사에 사측 대표인 이기형 의무부총장은 “교섭이 시작 되서 기쁘게 생각된다. 병원장일 때와는 다르게 당사자가 되어서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고대의료원이 위상도 올라가고 많이 발전했다. 노사 같은 식구니까 조직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좋은 분위기 속에 교섭 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어 노측 대표위원인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올해부터는 보건의료노조가 노사관계와 산별 관련하여 새롭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노조의 진정성을 의료원이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선 할 부분은 서로 힘을 합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25일 정책협의 때 인증과 관련돼서 복지부가 참가할 텐데, 나와 주셔서 얘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현장교섭 시작됐는데 병원이 성장한 만큼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교섭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서울지역본부 최희선 본부장은 “**노사 집행부가 다 바뀌었으니 새롭게 역사를 쓰는 2018년 교섭이 되었으면 좋겠다.** 짧고 굵게 합리적인 교섭 했으면 좋겠고, 고대의료원이 1조 클럽 간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안에서 노사관계 잘 형성이 되어서 직원들이 행복한 병원 되었으면 좋겠고, 고대 교섭 열심히 오겠다.” 고 말했다.

노재옥 지부장은 "**노사 신뢰를 주는 교섭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관행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된다. 서로간의 믿음과 신뢰를 확신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잘 마무리하는 교섭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교섭원칙 논의는 8가지 사항에 대해 공방 없이 구두 합의했다.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교섭은 노사 신뢰를 가질 것과 새로운 집행부이니 만큼 새롭게 시작할 것에 공감하며 교섭을 마무리 했다. 차기 교섭은 7월 26일(목) 오후 3시로 확정했으며 노동조합의 전체 요구안 발제 및 심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1. 단체 교섭은 주 1회 교섭을 원칙으로 한다.
- 단체교섭 : 목요일 오후 3시
(단, 일정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한다)
2. 교섭위원은 노사 각 6인(간사포함 7인)으로 한다.
3. 비전임 교섭위원 공가는 교섭 당일 병원별 각 1인으로 한다.
4. 참관인은 단체교섭 시, 교섭이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5. 회의는 공개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녹음 및 사진촬영을 허용한다.
6. 노사 교섭대표자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노사가 협의한다)
7. 교섭사회는 노사 윤번제로 한다.
8.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인증 기준 개선 위한 TF팀 마련하고 위원장이 위원으로 참가
신규간호사 제도 마련 및 이직률 줄이기 위한 야간 관리 간호료 지원 등 보건의료노조 병원정책 지원 관련 복지부 면담 진행

한편,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산별교섭과는 별개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병원 현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복지부가 아산병원 간호사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신규간호사 교육 제도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간호사 이직률의 원인으로 꼽히는 3교대 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야간 관리 간호료를 신설한다.' 고 밝혔다.

인증과 관련하여 '6개월 간 병원들이 노력해서 준비하고 3-4일 인증 받고 나면 그 이후 지속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면서 7월까지 인증 기준을 정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혁신팀을 꾸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인증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지원금 방안도 논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오는 31일 인증원 기준설명회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활동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노사가 더불어 정부에 요청하는 방식이 더욱 실효성이 있다.' 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래의학을 선도 할 고대의료원
고대의료원의 노사관계도 선도해나가자!

고대의료원이 교섭을 시작하면 언제나 적대적 노사관계 혹은 노사 불신과 불통의 관계였다. 결국 논의해야 할 요구안은 뒷전이었다.

고대의료원 90 주년이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의료원의 지난 날과 앞으로의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의료원이 다른 병원들보다 뒤쳐진 노사관계로 발목 잡혀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집행부가 취임한 만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신뢰와 소통의 교섭을 시작하자. 노사 모두가 의료원의 식구라는 의료원의 말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노사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자.

7월 17일 제헌절, "노는 날도 아닌데 휴일 수당이!?"

우리지부는 7월 17일 제헌절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국경일은 유급휴일로 한다'와 관련하여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경일임을 지적, 단체협약에 따라 제헌절에 근무할 시 이에 따른 휴일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료원은 이를 인정하여 올해 17일 근무 시 발생하는 휴일 수당을 8월 25일 급여일에 지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소급분에 대해서도 의료원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경일은 법률로써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5대 국경일로 제정했으며, 매년 공휴일로 지정하여 경축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으로 국경일을 유급 휴일로 설정해 놓았기에 제헌절이 제외되었어도 휴일 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아두어야 겠습니다.

2018년 산별현장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또한 비조합원분들의 가입을 부탁드립니다.